

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단체)	연속신청	접수번호
진화의사다디포프로격트 사원사업 진행사(단세)		

① 단체명		대학알리				
② 네트워크/컨소시엄으로		네트워크/컨소시엄	명			
신청하는	경우 	간사단체명				
사 업 명	대학별 독립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 창간 프로젝트</n대알리>				
사업기간	2023.03.01	. ~ 2023.12.31. (10개월])			
사업목적	대학별 독립	언론 <n대알리> 네트워</n대알리>	크 확장 및	ļ 대학 내 언론 ^지	h유 실현	
사업목표		전국 400개 대학에 독립언론 <n대알리>를 창간하여, 300만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고 대학사회의 언론자유를 실현한다.</n대알리>				
사업내용 요약	1-1. 월 1호 1-2. 온오프 1-3. 모집 2. 예비 NC 2-1. 대학일 3. 대학언론	.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예비 N대알리) 모집, 이후 정식 N대알리 창간 유도 -1. 월 1회 예비 N대알리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2. 온오프라인 상시적 모집 작업 -3. 모집 홍보 영상 제작 . 예비 N대알리에 대한 취재 등 상시적 활동 지원 -1. 대학알리 기자상 .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유도
사업예산 (원)	총사업비 19,970,000원 지원금 19,970,000원 자부담				-	
	전화번호	010-9923-4587	이메일	univallipress@	gmail.co	m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명 ^ᄎ		차종관	담당자 휴대폰	010-9923-458	7	
	기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10)1동 지하 1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신청기관명 : 대학알리 (직인)





1.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혹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학알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u>'대학사회에 언론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것'</u>입니다. 이로인해 대학사회의 문제와 목소리가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배경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 참 더럽고 오래되었습니다.'

2012 중앙동아리 해오름식 1300명 참여속 개최

축사 및 커팅식, 각종 동아리 공연 성황리 진행 예정 없이 길어진 총장 축사로 행사 차질 빚기도



▲ 2012 중앙통아리 해오름식에서 충장은 부실대학 선정을 피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였다.

축사에 이어 밴드 동아리 및 댄스 동아리, 마술 동아리 등의 공연이 참 석자들의 환호 숙예 이어졌다. 이혼 총동연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중앙동 아리를 핵신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예정 없이 길게 잔행됐던 총장의 축사로 외부 인사들의 축사와 지적장애인들이 준비한 전주자립원 공연 등 몇몇의 공연이 진행되지 못 했고 일부 관람적은 자리를 떠났다. 또한 동아라방을 순환하며 사용해 확 보된 공간을 스타다름으로 이용하자 는 제안 등은 동아라완들 사이에서 는데이 됐다.

총동연 김성민(기계설계공학・08)

당시 전북대신문 1면 부탑에 실리려 했던 기사, 편집권 침해로 무산됨 (정상석, 2013)

<전북대신문>의 정상석은 3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고 마지막 1년은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교육부가 부실 대학 찍어 내기로 한창이던 시절, 전북대학교 총장은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총동아리연합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러 올라와서는 "동아리 활동하느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동아리고 뭐고 부실대학 선정되면 우리 학교는 끝이다"등의 막말을 55분 동안 퍼붓고 떠났습니다. 애초에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학생자치에 부정적인 총장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언사를 내뱉은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행사는 모두 뒤로 연기되었고, 시작도 전에 절반의 학생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본 그는 1면 부탑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발행 직전 학생처에서 전화를 받은 주간교수는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취재했냐는 질문에 제대로 취재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멋대로 기사를 편집해 2면 박스로 발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항의하지 못한 그 자신이었습니다. 파업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간교수는 출세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총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잉충성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톨릭대학보>는 가톨릭대 박영식 총장의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해 일부 교수들이 비대 위를 구성한 것을 보도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간교수는 일방적으로 발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학보 발행이 중단된 이후, 기자들은 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학내 서명운동과 긴급 호외를 발행해 사건의 경위와 주간교수의 부당행위를 공개하고, 주간교수의 퇴진과 주간교수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학외에 알려지면서 결국 주간교수는 사표를 쓰고, 대학본부도 관련 규정을 완화할 뜻을 밝힘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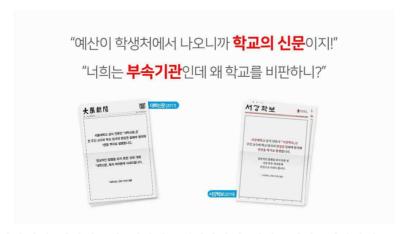


비슷한 시기, <전주교대신문> 편집장도 잔혹한 가을을 보냈습니다. 태풍 '볼라벤' 때문이었습니다. 태풍으로 학교 앞에 줄지어 서있는 히말라야시다 나무들이 쓰러졌고, 학교는 5000만원을 폐목 철거에 썼습니다. 전주교대 총장은 갑작스런 비용의 책임을 <전주교대신문>에 지웠습니다. 신문을 한 학기에 한 번만 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미 기고 받은 기사와 디자인이 끝난 상태의 신문이 있었지만, 발행대금을 받지 못했고 그 부담은 기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교대신문>은 평소에도 편집권 탄압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총장인터뷰 기사를 1면에 실으라는 압박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한 총장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사 문제로 자주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태풍을 핑계로 돈줄을 잘라버리는 총장을 보면 교사로 성장하는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지 우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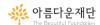


외대학보의 이야기 (대학알리 매체소개서, 대학알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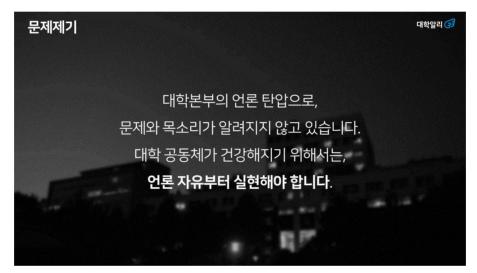
<외대학보>의 강유나 편집장은 해임당했습니다. 총학생회의 선거 공약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외대는 당시 주점설치 금지와 자치권 탄압에 저항하던 총학생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학생회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됐는데, 본부 처장단 회의에서 일부 처장들은 "단선이라 후보가 하나밖에 없 는 선거인데, 학보가 공약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 선거 개입이다. 고발하고 징계를 줘야한다"는 이상한 주 장을 펼쳤고, 총장은 학보의 발행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외대학보>는 명백한 언론탄압과 자치권 탄압에 맞 서 호외판을 발행했고, 전국 대학신문사에 공동 선언서 지지 서명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주간교수는 강유 나 편집장이 <외대학보>에 남아있는 한 이듬해 예산과 후배들에게 줄 장학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 강제적으로 해임시켰습니다. <외대학보>에 남아있던 기자들은 편집권 포기각서를 쓰라는 압력을 받았고 현재 기존 방식대로 학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지발행된 대학신문과 서강학보 (대학알리 매체소개서, 대학알리, 2022)



편집권 침해는 어느 특정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비극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해도 수많은 대학언론이 일방적 발행 중단 통보, 편집권 침해로 인한 백지발행, 편집장과 기자의 해임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대학 안에서 편집권 탄압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대학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파수꾼이지만, 총장이 발행인으로 모든 기사의 편집권을 갖는 구조에서, 학보는 제 역할을 해내기 힘듭니다. 학교 본부는 학보가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명분으로, 편집권 침해를 자행하고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합니다. 대학 본부는 대학언론을 '홍보팀' 또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학생처에서 나오니까 학교의 신문이지!" "너희는 부속기관인데 왜 학교를 비판하니?" 이런 대학 본부의 입장은 학보 기자들에겐 익숙합니다. 이에 맞서 대학언론인들은 백지발행등을 통해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악전고투하는 실정이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학 본부는 학보의 예산을 삭감하고, 휴간 조치를 하거나, 기자를 해임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알리의 문제정의 (대학알리 매체소개서, 2022)

모든 사회에 언론이 필요하듯, 대학사회에도 언론이 필요합니다. 편집권을 침해당한 대학언론은 대학 본부의 대변인으로 전략합니다. 제 기능을 잃고 흥미마저 잃은 대학언론에 언론의 기능을 기대하는 독자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내기에게도 대학언론은 그저 한 줄의 대외활동 스펙으로 여겨지는 요즘, 학교 안의 세상은 생각보다 더 폐쇄적이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편집되어서, 대학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조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야 하는 비리는 숨겨지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내용은 검열로 삭제됩니다. 대학의 언론탄압으로 인해 대학언론은 대학생과 청년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사회에는 건강한 문제제기와 담론 형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의 문제조차 인식하고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그대로 한국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대학사회도 바꾸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국사회를 바꿀까요. 한국사회가 어떻게 건강할까요. 대학사회가 민주주의 공동체로서 자정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대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양성될수 있으려면, 대학언론부터 제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강한 문제제기와 담론 형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총장이 발행인이면서 모든 기사의 편집권을 차지하는 구조, 언론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는 주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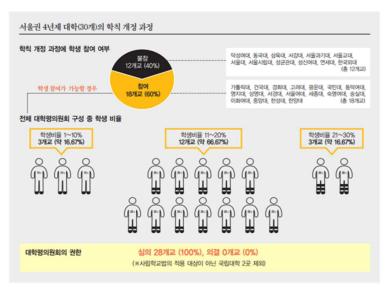


수와 총장의 인식을 제재할 수 없는 제도, 이로 인해 말을 듣지 않는 기자는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진 대학언론사는 기성언론의 병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그 공간에서 대학생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소한 부정에 눈감는데 익숙해집니다. 이런 부정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세월호는 그래서 가라앉았고 마우나리조트는 그래서 무너졌으며 이태원 참사는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학보가 경제적, 행정적으로 대학 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는 학생 기자가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대학언론의 독립은 대학생이면서 언론인인 우리가 지금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상황에 대한 통계 및 근거 자료 '핵심 문장만 간추려서 보여드립니다'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의 발생원인은 비민주적, 반헌법적 학칙때문입니다. 대부분은 1980년대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1975년 도입됐던 '학도호국단 학칙'에서 유래됐습니다' (윤영덕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21)



'학칙 개정과정에서 학생은 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정에 대해 의결권 없이 심의권만 행사하거나, 대학생 개인 등 대학 구성원의 학칙 개정발의가 제한되거나, 학칙에 대학평의원회의심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애초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인원을 적게 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중대신문, 2020)



대학 내 집회 제한 규정 및 징계

- 제92조 (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확성기사용 등)를 할 수 없다.
- 제93조 (집회 및 행사) 총학생회가 집회 및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및 교정별 부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규정」으로 정한다.
- B.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규정」
- 제10조 (집회 및 행사) 집회를 갖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일 5일 전까지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 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 「학생상벌 규정」
- 제12조(무기 정학) 허가없이 집회를 주동한 학생

학생단체 해산에 대한 규정

○ 제88조 (대학생활) 학생은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원 래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간행물 및 홍보물 관련 제한 규정

「학생 간행물에 관한 시행 세칙」

○ 제4조 (간행물 발간의 허가)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다음의 서류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상벌 규정」

- 제10조(근신) 허가 없이 공고물 및 게시물을 비지정된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제11조(유기 정학) 허가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학생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의 자격기준 제한(성적기준)

○ 제89조의2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 제1항 제2호. 평점 평균(C+) 2.5이상인 자

학생자치기구 승인 절차를 통한 제한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규정」

○ 제5조(승인) 학생단체는 등록 신청을 마친 후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다.

학보사 편집권, 운영권 침해

「학보사 규정」

- 제6조(발행인) 발행인은 총장이 된다.
- 제7조(편집인) 편집인은 주간이 된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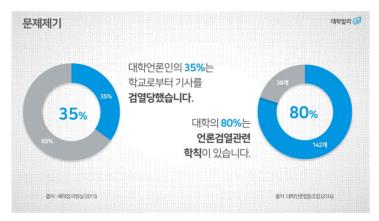
○ 제108조 (학칙개정절차) 기획처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각 기관의 요청에 의해 학칙 개정안을 입안하고 사전공고를 한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대표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13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대표적인 비민주적 학칙 - 가톨릭대학교 (비민주적 학칙 전수조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2022)

'2007년 대학들의 비민주적인 학칙을 지적하며 국공립대학교 20개교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 혹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사립대학 40개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인권위 권고대상 대학의 74%는 권고를 무시함'(익명의 인권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2022)



'전국 대학 180개 중 142개 대학은 언론 검열 관련 학칙이 있어'(대학언론협동조합, 2016) '수도권 대학언론인의 35%는 기사를 직접적으로 검열당한 경험이 있으며, 자기 검열, 사전 검열까지 합하면 50%를 훌쩍 넘어'(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실, 2013)

'간행물 발행·배포에 92.4%의 대학이 학교측의 사전승인이 필요함'(안민석 의원실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10)

2017	충북	청주대학교	청대신문	청대신문 909호 신문 회수 및 910호 편집권 침해 사건	- 대학 본부 측이 청대신문 909호에 살린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 공판 열려' 라는 제목의 보도면을 이유로 신문 전향 회수 - 일방적인 회사에 91호호 기업에 항의성명문을 실을 예정이었으나 학교 당국의 압 박, 발행을 불허한 주간교수의 사퇴로 발행 중단 선언
2017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서울대 학보 편집권 통제 사건	- 주간 교수 및 학교 당국 측은 기자단에게 삼성반도체 방요됩 기사 개제 불최, 특 정기사 강요, 본부 전계를 비포한 학대 이후 외면 등 언론탄일을 자연 행 - 더불어 본부 층은 시흥엔비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적게 다루 라는 악비를 받았으며, 주간교수가 가다단에게 알리지 않은 책 학기는 5개에 개교 70주는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대가로 대학 본부로 부터 지원금 수립 - 이에 기자단은 멘집된 침액에 향의해 1940호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 - 이루 서울대 총합시사지 <서울대체물>이 대원본부의 《대학신문》 관합권 등제 외혹을 첫번점하는 메모를 입수해 공개, 메모를 살펴보면 실시된 충경이 학생점이 에게 <대학신문의 모드에 적극적으로 대중하는다고 지시, 《대학신문》 제체를 독재시대 유혈체제로 기본하는 등 인사권과 편집권을 학생기자단이 가진 사실에 대한 비만 등이 담김
2019	서울	고려대학교	고대신문	고려대 학보사 기자칼 럼 교직원 편집권 침해 및 직무정지 논란	- 고대신본에 성소수자 형은 법인을 용인해야한다는 내용의 람칙이 게제됨 - 칼럼을 싣는 파천에서 교칙인이 기획간사가 부당하게 편집권에 개입, 데스킹 과 경에서 문제가된 단락이 독단적으로 추가됨 - 편입국 측에서 정식 사과 대자보의 함께 데스킹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밝혔으나, 기획간사가 전원구원들께 지역자정지 저분 대령
2019	서울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서강학보 백지 발행 사건	- 서강한보는 학교 이사회와 총장 관련 재단 기획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이 신문 발생을 불러 - 본부 측은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행정적 처벌을 감행하겠다'라는 의사 를 학보 측에 전문, 이에 서강학보는 기자의 신번에 위협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판 단해 해당 기사 업보도 지연 결정
2021	서울	숭실대학교	숭대시보	숭대시보 발행 중지 및 기자 전원 해임 사태	- 승대시보는 대면수업을 게재한 총장과 학교 측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수록, 이후 본부 측으로 부터 "신문을 발행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통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사례조사 결과, 2010년 이후 발생한 언론탄압사례는 22건에 달함. 하지만 이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사례일 뿐, 보이지 않는 탄압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됨'(교육분야 연구보고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해임된 날짜 2021년 10월 27일 오후 7시

명확한 해임사유 '사실과 다른 기사를 발행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

한편 교육부는 2021년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에 관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숭대시보가 발행하려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함

해임 명령 주체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 이승복 주간 교수

해임 기자 명단과 직급 강석찬 조민규 최은지 김정연 김도윤 손효민 이다혜 이영서 한규리

편집국장 정기자 정기자 정기자 정기자 정기자 정기자 수습기자

'숭실대는 총장의 잘못을 적은 기사를 보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며 학보사 기자를 전원 해임한 바 있음'(숭대시보 언론자유탄압 사태에 대한 대학 본부 규탄 기자회견, 숭대시보 편집국장 강석찬, 2021)

긴급 공기 [학생대표 2인 무기정학]

총학생회 한빛입니다. 오늘 진행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복지국장 근신 2주 성평등국장 경고

위와 같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관계자는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를 여는 등 학교의 비리에 대해 고 발하였는데, 이에 대해 학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림'(한신대학교 총학생회, 2020)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 붙은 '윤석열 비판 대자보'가 이틀 만인 12일에 사라짐. 해당 대자보에는 고교생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감사원의 대통령실 문자보고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음.' (서울대 '윤석열 탄핵 대자보', 이틀만에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2022)

'홍콩 민주주의 지지를 위해 붙인 레논월이 연세대 본부 측에 의해 떼어졌다. 학교는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게시글이라며 철거 이유를 밝혔다'(모 연세대 재학생, 2021)

'홍익대 청소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모 공간과 대자보를 철거했다. 이후 강한 항의를 통해 학교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노학연대 모임 모닥불 대표 김민석, 2021)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현수막이 철거되었다. 앞서 4차례의 게시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당했고, 게시하자 일방적 철거를 당했다'(가톨릭대 인권 모임 가다 대표 최아현, 2021)

'언론탄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나 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학칙의 개정사항에 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교육부,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한 답변, 2020)

피해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 '그동안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 1. A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임원 B씨는 동아리의 명부조작 사건을 동아리연합회에서 묻어가려 하자, 당시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대학알리>에 제보하였습니다. 학보사가 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 C대학교의 학생들은 학보사가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학사구조개편 이슈를 다루지 않아 본인의 학과가 어떻게 개편되고 어떤 개편을 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부 학생들의 과는 통폐합되어 사라졌습니다.
- 3. D대학교의 예술대학 학생들은 예술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일으킨 교수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강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와 학보사 모두 그 성폭력 사건에 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E대학교의 학생들은 학보사의 늦은 보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의의 비대면 전환 여부를 모른 채 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 5. F대학교의 학생들은 본인들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보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총장의 치적에 대해 알리는 기사만 썼습니다.
- 6. G대학교의 H씨는 학내의 비성숙한 성인식 문제를 알릴 공론장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언론은 공론장을 열기를 거부했으며, 마지막까지 회피했습니다.
- 7. I대학교에서는 새로 건축된 기숙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학보사를 포함한 학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기숙사 신청자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 8. J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음주운전을 일으켰지만 소식이 학보사에 일절 실리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9. K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서버 관리 부실로 인한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오류로 피해를 본 뒤, 이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오류는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학보사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제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 L대학교의 M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내 불만족 사항을 소송하는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이 소송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학교의 입장을 마주했습니다. 학보사는 이 악랄함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솔루션 '대학생 중심 독립언론을 전국 대학에 창간하자'



[**자회사**] 각 대학의 학생이 직접 만드는 대학별 독립언론



[**모회사]** 독립언론 인프라 지원 표준 콘텐츠 제작, 매체 및 단체 운영

- <u>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독립언론 <대학</u> 알리>와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
- <u><N대알리></u> : 각 대학의 학생이 직접 만드는 대학별 독립언론, 각 대학사회에서 알려지지 못한 알 권리와 목소리를 당사자로서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
- <u><대학알리(편집국, 사무국)></u> : 대학생이 자신의 대학에 '쉽게' 독립언론 <N대알리>를 창간하도록 인프라무상 지원, 기자의 활동과 성장을 조력하고, 직접 표준 콘텐츠를 만들며 매체 및 단체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운영

대학생의 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은 저희 팀은, 대학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언론을 꿈꾸며 대학으로부터 경제적, 행정적으로 독립한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를 기획하고, 대학 내 독립언론 창간과 학생기자의 자유로운 편집권을 보장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N대알리>는 <세종알리>, <외대알리>와 같이 대학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알리>는 1. '알 권리'의 준말 2. 영어 '연대'(Alliance) 3. 이탈리아어 '날개'(Alli)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학생 당사자가 기자가 되어 대학 본부의 편집권침해와 대학 공동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존 대학언론과 기성 언론이 알리지 못했던 대학 및 청년사회의문제와 이야기를 조명하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대학생 및 청년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9년의 활동 기간 동안, 연 평균 20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년 담론이 모인 국회 토론회를 수차례 조성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대선 후보 간담회마저 열었습니다. "총장님, 이사장이 두렵습니까", "소송 취하하면



장학금 줄게"학생 압박하는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 고발된 A교수의 근무태만", "우리 학교, 성폭력, 지금 여기"모두 <대학알리>가 작성한 기사들입니다. 총장의 비리, 대학생의 주거권, 총장직선제를 향한 투쟁, 학내 성폭력, 커뮤니티 속 혐오, 여성 청년의 우울 등. 기자들은 기성언론 및 기존 대학언론과 차별화된 색다른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알리>와 <N대알리>는 각 대학의 학생 당사자로서 알 권리를 보장하며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대학사회의 대표적인 독립언론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대외로부터 대학생 당사자의 대안언론으로써 대학생의 언로를 틔웠고 편집권과 자치권을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알 권리와 목소리에 갈증을 느낀 이들이 인프라를 지원받아쉽고 편하게 자신의 대학에 독립언론을 창간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N대알리>를연구및 개발하여각 대학에 확장하고자합니다. 더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알 권리와 목소리를지켜갈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많은 대학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당사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직접 짚어내는 <대학알리>의 임팩트 증대가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3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합니다.

미션과 비전을 위해, 지난 9년간 대학알리의 구성원들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들을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진득이 해왔습니다. 아직 완벽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놓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회 문제도, 하루, 한 달, 일 년만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열정과 끈기로 집요하게 문제를 물어뜯고 있는 대학알리, 취재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지난 서사를 바탕으로, 대학알리는 대학사회를 넘어 한국사회을 바꾸고 있는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본 프로젝트에서 혁신을 꿈궈볼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해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대학알리에게 성장할 기회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십시오. 지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학독립언론의 존재의미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저희의 임팩트를 확장시키고 싶다는 갈망과 야망,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대학독립언론, 대학알리를 선택하십시오.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으로 인해 학보사는 홍보 이상의 목적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 없는 대학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학보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중심 독립언론이 전국 대학에 창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알리는 이번 2023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2.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입니까?

"전국 400개 대학에 독립언론 <N대알리>를 창간하여 300만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고 대학사회의 언론자유를 실현한다."

대학사회의 언론자유를 실현하여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학생이 보다 활발히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대학 구성원의 대학사회 문제 관심, 해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 해결률이 증가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귀감이 되어 또 다른 문제 해결 참여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은 기존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문제를



상대로 승리해보는 경험'을 학습하며, 스스로 자주적이고 건강한 대학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용기와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토대가 됩니다. 대학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학사회를 넘어 한국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400개 대학에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를 창간하여,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는 학보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300만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공동체의 문제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사업목표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작은변화'는 무엇입니까?

- 1. 전국 100개 대학에서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예비 N대알리) 모집, 이후 정식 N대알리 50곳 창간
- *대학독립언론 창간인 모집 정수에 대한 정식 N대알리 창간 목표율은 50%입니다. 모집된 인원 중 절반만 창간에 성공하면 됩니다. 즉, 전국 100개 대학에서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을 모집한 후, 정식 N대알리 50곳을 창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 대학독립언론 창간인 모집 수, 정식 N대알리 창간 수, 창간 시도 건수와 성공률

- 1-1. 월 1회 예비 N대알리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 *권역별 거점 대학에서 진행합니다.

성과지표 : 청중 수, 연간 설명회 개최 횟수, 부스 참여자 수

1-2. 온오프라인 상시적 모집 작업

*포스터 디자인, 포스터 인쇄, 포스터 부착, 소셜미디어 광고, 홍보용 대학별 레퍼런스 기사 취재 등을 의미합니다.

성과지표 : 포스터 부착 건수, 소셜미디어 도달 수, 레퍼런스 기사 취재 건수 및 조회수

1-3. 모집 홍보 영상 제작

*모집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며,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고 광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 : 영상 조회 수

- 2. 예비 N대알리에 대한 취재 등 상시적 활동 지원
- *정식으로 창간되지 않은 예비 N대알리에게도 취재 등 활동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합니다. 성과지표 : 지원 횟수, 지원사항 및 금액, 예비 N대알리 발행 기사 수 및 조회수, 기사에 대한 독자의 피 드백
 - 2-1. 대학언론인 컨퍼런스와 어워드 집행, 100명 참여, 누적 30건의 응모작 접수
 - *대학언론인에 대한 격려와 메리트 제공 차원에서 어워드를 집행합니다.
 - *대학언론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컨퍼런스를 집행합니다.

성과지표 : 컨퍼런스 참여자 수, 수상 기사 원문와 임팩트 문서, 응모작 접수 건 수



- 3.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집행, 누적 수강생 수 3,000명 달성
- *대학알리 기자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3기 4기, 클래스, 세션을 진행합니다. 단, 대학알리 기자 뿐 아니라 대학생 및 대학언론인 모두에게 강좌를 공개합니다.
-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1, 2기는 누적 4,000명의 수강생을 모객한 바 있습니다. 성과지표 : 누적 수강생 수, 강좌 수, 강사 수, 수강생의 피드백, 강의평가점수



3) 사업구조

1-1. 대학별 N대알 리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1-2. 온오프라인 상시적 모집 작업

1-3. 모집 홍보 영 상 제작

2. N대알리에 대한 상시적 활동 지원

2-1.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어워드 집행

3. 대학언론인 아카 데미 집행

산출물

1-1. 수도권 및 지 방 대학교에서 월 1 회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1-2. 홍보 포스터 인쇄 및 배포, 소셜 미디어 광고 제작, 홍보용 대학별 레퍼 런스 기사 작성

1-3. 모집 홍보 영 상 유튜브 업로드

2. N대알리 구성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상시지원

2-1. 대학언론인의 연결과 격려를 위한 컨퍼런스 및 어워드 개최

3. 대학 언론인 아 카데미 3기 기획 및 진행, 누적 수강생 수 3,000명 달성 목 표

목표 (작은변화)

1. 전국 100개 대학에서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예비 N대알리) 모집, 이후정식 N대알리 50곳창간

2. N대알리의 콘텐츠 제작 역량 향상

3. 대학언론인 실무역량 향상, 대학알리 홍보에 따른 지원자 수 증가

목적

전국 400개 대학에 독립언론 <N대알 리>를 창간하여 대 학 내 언론자유 탄 압 문제를 해결하고 300만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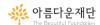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사회 문제 인식, 해결 역량 증가

대학 구성원들이 졸 업 후 사회에 나가 서도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 해 노력하는 민주시 민으로 성장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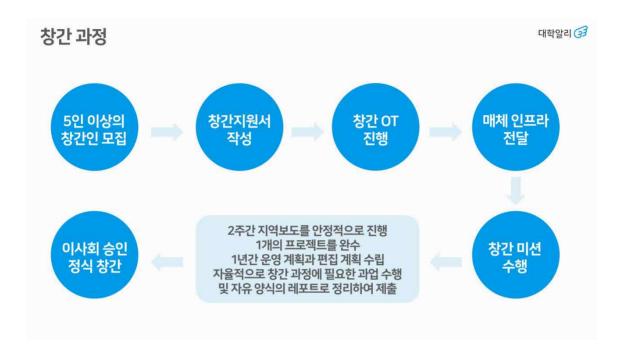
1)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전국 100개 대학에서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예비 N대알리) 모집, 이후 정식 N대알리 50곳 창간 전국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예비 N대알리로 활동하며 모교학우들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합니다. 예비 N대알리의 활동과 창간까지의 총체적인 과정은 대학알리편집국과 사무국이 주도합니다. 편집국은 데스킹을, 사무국은 취재지원을 하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활동초기에는 대학 내 성폭력 현황조사,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피해 조사 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취재를시도하기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집된 대학독립언론인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다면 임팩트 있는



기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언론 활동이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유의하게 보장하고, 활동 인원이 5인 이상 모일 시점이 오면 정식으로 창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창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식 창간이 된 예비 N대알리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참석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예비 N대알리 구성원 모두가 대학알리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총회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1-1. 월 1회 예비 N대알리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학기 중 월 1회 이상 권역별 거점 대학을 선정해 예비 N대알리 창간설명회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조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근처 N대알리와의 매칭을 통해 N대알리 창간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학독립언론인을 육성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N대알리를 더욱 확장합니다. 한해동안 최소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최근 대학 본부의 비리 등 사건이 터진 대학을 집중공략합니다. 독립언론이 생길 수요는 이러한 대학가의 비극을 토대로 생기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창간설명회는 대학알리와 N대알리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이며 대표와 부대표가 운영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취재 아이템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시간 가량 진행되며, 설명 이후 질의응답과 창간설명회 참여자 특전을 안내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알리 사무국과 편집국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통해 N대알리가 취재 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부스는 대학알리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 부스 운영 시간은 학생 유동인구가 많을 평일 오후 시간대에 6시간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부스 행사의 전반적 활동은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여 같은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N대알리 창간인을 모집합니다. 부스 운영에 대한 홍보는 사전에 해당 학교 총학생회와 연락하여 간략한 홍보를 부탁하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합니다. 원활한 부스 활동을 위해 캐노피 천막, 단체를 소개하는 팜플렛, 탁상, 의자, 다과 등의 준비물품을 사전 준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학의 새내기 배움터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의 디지털리터리시'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이 끝난 후 대학알리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1-2. 온오프라인 상시적 모집 작업

*포스터 디자인, 포스터 인쇄, 포스터 부착, 소셜미디어 광고, 홍보용 대학별 레퍼런스 기사 취재 등을 의미합니다.

모집 공고 포스터를 제작해 각 대학 캠퍼스 내에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1000부 가량을 인쇄하여 2023년 3월에서 9월까지 전국 다양한 대학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알리의모든 구성원들과 지인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다양한 대학에 배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최소 10곳 이상의 대외활동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사무국이 중심이 됩니다. 필요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광고를 띄웁니다.

N대알리 창간 홍보시 필요한 대학별 특화 레퍼런스 기사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 학생들에게 N대알리 창간 이 보다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 시급 '400원' 인상 요구하는 청소노동자, 거부하는 덕성여대)

1-3. 모집 홍보 영상 제작

2023년 2월, N대알리 창간인 모집 홍보 영상 및 단체 소개 영상을 제작합니다. 3월 내에 영상을 완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 대학알리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곳에 노출시켜 단체를 홍보하고 N대알리 창간인을 모집합니다.

2. 예비 N대알리에 대한 취재 등 상시적 활동 지원

N대알리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오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더욱 다양한 기사 작성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이 취재 활동에서 사용할 금액을 사전 신고하면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반드시 사전 신고된 항목의 100%를 지원하도록 하며, 사후 신고한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N대알리 기자들의 더욱 원활한 취재를 위해 기자재와 프레스키트를 구입합니다.

2-1.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어워드 집행

2023년 5월 26일, 대학언론인 컨퍼런스와 어워드를 집행합니다. 대학언론인의 연결과 격려, 동기부여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수상자에게 상패를 제공합니다.

3.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집행

전국 대학언론인 대상으로 온라인, 실무중심, 완전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미 대학알리는 두 차례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누적 4,000명의 수강생을 모객한 바 있습니다.

창간을 결심한 예비 N대알리 구성원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기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는 기자로서의 상시적 기초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그니처 코스

일시: 매년 2회 진행 (3, 9월)

방법 :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평일 저녁 실시간 강의

클래스

내용 :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

일시 : 매월 1회 진행 (시그니처 코스가 없는 달)

방법 :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연사 1인이 1회 강연

세션

내용 : 대학언론인이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대학언론인에게 강의를 진행하는 상시적 기초소양교육

커리큘럼에는 인디자인, 사진, 글쓰기 기초, 취재 및 기획, 동기부여 과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에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함께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3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3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아카데미가 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학 언론인 아카데미에 참여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어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알리 편집국 및 N대알리 구성원들 역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강 시즌에 맞춰 2023년 3월 혹은 9월에 약 한 달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알리에 대한 홍보가 되어 지원자수를 늘릴 수 있기도 합니다.

2) 주요사업일정

주요활동	간단한 활동내역	일정(월)
창간설명회 및 부스 운영	권역별 거점 대학에서 독립언론 N대알리 창간을 독려	2023년 3월~ 4월
모집 홍보 영상 제작	예비 N대알리 모집을 위한 영상 광고를 제작	2023년 2월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어워드	대학언론인의 연결과 격려를 위한 행사 진행	2023년 5월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진행	예비 N대알리 역량 강화 및 단체 홍보를 위한 교육 진행	2023년 3월 9월



4. 단체 역량과 시민사회 영향력

① 이 사업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대상, 아이디어, 방법, 시도 등)

2013-2018독립2019-2022지속가능성 모색2023-자립과 확장

현재까지는 사무국과 편집국을 신설 및 안정시키고 N대알리 모델의 태를 잡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당장의 확장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안정을 도모한 것인데요. 이제는 N대알리 모델을 전국 대학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에 박혀있지 않고 직접 지역으로 가서 동료 대학생을 만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 (한국외국어대, 성공회대, 건국대)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지역에 N대알리 확장을 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수십개의 N대알리를 만들겠다는 규모적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도에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를 연구하여 대학언론의 리스크를 알고, 이에 맞게 N대알리 모델을 연구개발하겠다는 것도 전혀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언론의 위기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위기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대학언론인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학알리는 이 논쟁과 위기의심화에 종점을 찍고자 합니다. 발전된 N대알리를 통해 대학언론의 위기 정도는 뛰어넘겠습니다.

N대알리에 대한 상시적 활동 지원과 대학알리 기자상,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는 최근 이미 집행했던 적이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새롭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한 귀 단체의 자체 역량과 자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배치되고 운용됩니까?

- 2013. 05. <대학언론협동조합> 창립
- 2013. 11. <외대알리> 창간
- 2019. 02. <N대알리> 재창간 TF 출범
- 2019. 05. 2019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대학알리> 선정
- 2019. 06. 비영리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참가
- 2019. 09. <대학알리> 재창간 및 설립, <대학언론협동조합> 퇴임
- 2019. 11. 2019 서울청년주간 청년활동박람회 참가. 2019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참가
- 2019. 12. 2019 다음세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선정



- 2020. 02. 제11회 시사IN 대학기자상 [뉴커런츠 부문] 수상 <대학알리> 박성빈 '권리의 위계-춘천 청춘 노선'
- 2020. 03-11. 서울시 양천구 '청소년기자단' 사업 참여
- 2020. 07. 2020 유니브엑스포 서울 참가
- 2020. 09.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학생 부문 서울권역 입상, 전국대회 진출
- 2020. 09-12. 코로나19 대학등록금 추적뉴스 객원기자단 운영
- 2021. 0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21. 03. 202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 2021. 04.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1기, 2기 및 클래스 운영
- 2021. 05. 2021 유니브엑스포 서울 참가
- 2021. 08. 쿠키뉴스의 대학언론인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실현에 관한 협약
- 2021. 10. 2021 NPO 파트너페어 참가
- 2021. 10 '대선 후보와 MZ세대, 청년 정책을 이야기 하다.' 공동 주관 (원희룡, 유승민, 심상정, 김동연후보)
- 2021. 11. 2021 유니브페스티벌 참가
- 2022. 06.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공동 주관
- 2022. 08.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2022. 10. '대학 내 언론자유 국회가 나서서 실현하라.' 공동 성명문 게시

대학알리는 지금껏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알 권리 및 목소리 보장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금까지 발행한 인터넷 신문 기사 1450개가 이를 증명합니다.

N대알리는 각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 당사자가 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언론사 기자보다도 이슈에 가깝고 대응이 빠릅니다. 대학알리 편집국 역시 전체 대학사회를 바라보며 기성언론과 기존 대학언론이 알리지 않는 알 권리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의 이사회는 매년 2월 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2022년 이사회의 경우 2017년부터 알리를 발전시켜온 대표와 유기견 소셜벤처 대표 출신 부대표, 여성주의 교지 편집장 출신의 편집국장, N대알리 대표 출신의 사무국장, 학보사 편집부장 출신의 부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이 사업의 성과를 아름다운재단 지원 이후에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 사업이 종료된다면, 전국에는 50여개의 N대알리가 살아숨쉬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대학 공동체(사회)의 문제와 목소리를 알리고, 대학생(시민)의 문제인식과 해결을 도우며 대학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대학알리는 언론인 만큼 저희의 취재기사로 시민과 사회와 공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④ 이 사업의 위험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학알리는 대표가 대외협력 이슈를, 편집국(장)이 콘텐츠 이슈를, 사무국(장)이 운영 이슈를 담당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위험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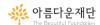
1. 대학독립언론 창간인(예비 N대알리)가 모집이 저조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학사회 내 이해관계자와 잠 재창간인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 2. N대알리 창간설명회와 부스 운영에 성과가 미진한 경우 후원금을 활용하여 참여자 특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각 학교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부스 홍보 및 공지를 부탁하겠습니다.
- 3. 예비 N대알리에 대한 취재 등 상시적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시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 4.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수강생 수가 부족할 경우 전국 대학언론 편집국에 직접 팩스와 이메일, 전화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 5. 대학언론의 위기 연구는 학부생인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의 D랩(사전협의 완료)에 의뢰하여 실패 가능성을 줄이겠습니다.
- 6. 2월에 신임 대학알리 이사회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전임자들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 7. 예비 N대알리가 쓴 고발성 기사 중에서 법률 이슈가 생길 경우 저희 쪽 자문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홍지형 변호사)
- 8. 예산안이 기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재단 매니저님과 협의하겠습니다.

5. 네트워크 / 컨소시엄 수행조직

구분	기관명	수행역할
신청단체		
협력단체		
협력단체		
협력단체		



*연속 신청 단체만 해당		
- 2022년 사업을 토대로 이루어진	진 '작은변화'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사업목표를 중심으로	



6. 사업예산

		금액(원)			
활동	계정항목	계	지원금	자부 담	산출근거
	물품구매비	180,000원	180,000원		이동식 핸드카, 조립식 가 판대를 구매하여 부스 운 영을 하고자 합니다. 핸드 카는 사업설명회에 자료를 옮기는 역할도 수행합니 다. 이동식 핸드카 구매 *1: 90,000원 조립식 가판대 구매*1
N대알리 창간인 모집 설명회 및 부스 운영	여비교통비	2,000,000원	2,000,000원		부스 운영 인원이 5박 가 량 묵을 수 있는 숙박비가 필요합니다. 권별 대학 이동에 필요한 5회 왕복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교통 여건 및 당시상황에 따라 KTX 혹은 SRT에 따라 이동합니다. *출장 10회 중 5회는 수도권 대학으로 따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TX or SRT 이용 : 5회왕복*3인*50,000원 = 1,500,000원 숙박비: 5박*100,000원 = 500,000 원
	지급수수료	170,000원	170,000원		부스 참여자들에게 나눠줄 팜플렛 제작비가 필요합니 다. 6장 분량의 팜플렛 500부 제작 팜플렛 500부 '에이프린



				트' 제작: 170,000원
	소 계	2,850,000원	2,850,000원	
N대알리 창간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지급수수료	160,000원	160,000원	N대알리 창간 홍보 및 후 원 요청 포스터를 200부 가량의 인쇄할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방수 포스터 200부 '에이 프린트' 제작: 160,000원
	취재지원비	420,000원	420,000원	대학알리의 취재 및 성장 지원비입니다. 상시 콘텐 츠 제작에 쓰입니다.
	소 계			
물품구매	물품구매비	3,000,000원	3,000,000원	취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취재용 카메라가 필 요합니다. 카메라와 렌즈: 2,000,000 원
	소 계	2,000,000원	2,000,000원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어워드	사업회의비	320,000원	320,000원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진행을 위한 공간 대관비가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을 위한 다과와 식비가필요합니다. 공간 대관비: 1시간당 30000원*4= 120,000원 다과비, 식비: 200,000원
어워드	물품구매비	1,250,000원	1,250,000원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참여기념품과 대학언론인 어워드 상패 지급에 쓰일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기념 품 제작(뱃지 등): 1,000,000원
	소 계	1,570,000원	1,570,000원		
대학언론인 아 카데미	사업인건비	6,000,000원	6,000,000원		교육을 맡아주실 강사분들 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총 20개의 강좌로 열릴 예정입니다. 2023년 3월에 3기, 9월에 4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사비: 1인당 200,000 *15번 (3월 및 9월) = 6,000,000원
	지급수수료	300,000원	300,000원		교육 진행을 위한 줌 프로 그램 결제가 필요합니다. 줌: 실비비
	소 계	3,340,000원	3,340,000원		
예비비	예비비	200,000원	200,000원		전체 사업비의 1%
ا الماما	소 계	200,000원	200,000원		
사업비 소계(A)	14,000,000 원				
인건비	6,000.000원			사업수형	생인력 3인*2,000,000원
운영비 소계(B)	6,000.000원				
총계(A+B)	20,000,000원				

단체 현황표							
단체명	대학알리		설립연월일	2013.05.26. (대학언론협동조합)			
단체소개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다 리독립언론	하생의	알 권리와 목	소리를 보장하는 비영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있음 등록번호 : 107-82-76165	□없음 대표지	· ·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차종관	□상근	- ☑비상근				
대표자 약력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				
アフト ラ	대표자	1명	상근 직원	긛	0명
조직현황	임원	6명	비상근 직	원	93명
임원	2022년 대학알리 이사 대표: 차종관 편집국장: 조수근 사무국장: 김연준 부대표: 이래희 부국장: 이다혜 감사: 심하연	회(임원)			
시설현황	□소유 ☑임차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un 스티비 : https://univ 이슈 : https://issuu. 유튜브 : https://www 블로그: https://blog. 페이스북: https://ww 인스타그램: https://v 트위터 : https://twit	valli.stibee.com/ com/univalli v.youtube.com/chan naver.com/univalli w.facebook.com/uni vww.instagram.com/	ivallipress/ univallipress/		f4gDd1ne5lQ
설립목적	<대학알리>는 대학생의 폐쇄성으로 인해 7 문제와 이야기를 조명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존 대학언론과 기성 하여 문제 해결의 단최	언론이 알리지	못했던	대학 및 청년사회의
주요연혁	-21.04 대학언론인 여	등조합 설립 F조합 퇴임, 대학알리 나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내학언론 지원을 통한	노 1-2기 및 클		
주요활동	-인터넷 신문 기사 및 콘텐츠 발행 : 1년간 총 232개의 기사 발행, 9개의 영상 제작. -대외협력 : 2021NPO파트너페어, 2021유니브페스티벌 참여. 쿠키뉴스 협약 -국회토론회 공동 주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젠더 갈등 해소'주관.				
연간재정공개	□비공개 ☑공개 (박	방법 : 총회 및 홈페이	지 공개)		
전체 회원수		100명 정기후	원자수		31명

최근 3년간 단체 수입

2021년 결산기준			2022년 결산기준(가결산)			2023년 예산기준		
항목	금액(원)	비율	항목	금액(원)	비율	항목	금액(원)	비율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정부위탁사업			정부위탁사업			정부위탁사업				
정부프로젝트	14,000,000원	78.2	<u>정부프로젝트</u>			정부프로젝트				
민간프로젝트			<u>민간프로젝트</u>			<u>민간프로젝트</u>	20,000,000원	69		
법인/본부지원	2,500,000원	14	법인/본부지원	6,000,000 원	82	법인/본부지원	6,000,000원	20		
수익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				
회비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기타	1,395,826원	7.8	기타	1,311,000원	18	기타	3,000,000원	11		
합계	17,895,826원	100	합계	7,311,000원	100	합계	29,000,000원	100		
최근 2년간 프로젝트 지원 내역 (<u>정부프로젝트 & 민간프로젝트</u>)										
지원연도	지원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원)			
2021년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4,000,000			
2022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변경 사유서

대학알리는 더 유의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

- 1. 본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기로 한 대학알리 기자상을 조금 이른 2월 17일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대학언론인과 함께하기 위해 대학언론인 컨퍼런스, 어워드를 추가 집행하고자 합니다.
- 2. '대학언론의 위기 원인'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으며 적절한 연구자를 찾지 못하여 차후 기회에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예산

- 캐노피 천막, 탁상, 의자를 구매 혹은 대여하기보다는 이동식 핸드카, 조립식 가판대를 구매하여 부스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 보았습니다.
- 3인의 5회 교통 및 숙박비가 필요하여 200만원까지 증액하였습니다.
- 팜플렛 제작비를 더욱 아꼈습니다.
- 영상 제작 업체 의뢰 비용을 삭제하고, 대학알리 자체 역량으로 소개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 대신 창간 및 후원 포스터 제작비와 기자들의 취재지원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 단체 소유의 노트북은 필요치 않아, 카메라를 1대 늘리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대학 알리는 1대의 저가형 카메라를 소유중입니다.
- 대학알리 기자상 대상 대학언론인 컨퍼런스와 어워드를 진행하며 물품구매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참여 자 기념품 증정과 어워드 수상자 상패 지급을 위해서입니다.
-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는 3월 및 9월 모두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2배 상승시켰습니다. 다과비는 필요치 않아 제외했습니다.
- 대학언론의 위기 원인 연구 예산 항목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삭제했습니다.